

전남

장성교육청 예산줘도 안쓴다

사업 38건 사업비 한푼도 사용 안해

4분기 몰아치기 집행 예산낭비 우려

장성교육지원청이 2011년도 편성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불용처리를 우려해 편성된 예산을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 각종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된 장성교육지원청의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유 의원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등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성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된 세출예산은 확인한 결과 38건의 경우 예산만 세워 놓은 채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40건은 3·4분기 동안 배정된 예산 가운데 불과 30~40%만 사용한 채 50% 이상을 남겨둔 상태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4·4 분기에 예산을 집중 사용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4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장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연초나 연중 집행했어야 할 '교실수업

조나 연중 집행했어야 할 '교실수업'

'개선지원' 예산을 비롯해 '체육교실 내실화비', '학생상담 활동 지원비' 등을 3·4분기까지 전혀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독서교육 활성화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등은 3·4분기까지 불과 배정된 예산의 20% 가량 밖에 집행하지 않아 관련 사업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장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당시 사업 추진 시기가 계획돼 있어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업 등은 대부분 10~11월 집행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고즈넉한 영랑생가 돌담길

의 건물이 있다.

강진군 강진읍 탑동마을에 위치한 영랑생가(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2호)를 찾은 관광객들이 돌담길을 걷고 있다. 영랑 김윤식 시인의 창작산실인 영랑생가는 부지 4000여㎡에 정면 5칸·측면 1칸인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 등 3동

<강진군 제공>

신안 땅콩 40년만에 화려한 부활

자은도 생산 27t 출하 한달만에 전량 팔려

신안 땅콩이 4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 농가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은 "자은도 일대 농경지 11ha에서 생산된 땅콩 27t이 출하 한달 만에 전량 팔렸다"고 30일 밝혔다.

자은도 일대 논밭은 계르마늘 성분이 다량 함유돼 예부터 땅콩의 최적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온저장과 선별, 가공과정을 거친 땅콩은 뿐을 땅콩(250g)과 생땅콩(1kg)으로 소포장 판매돼 모두 3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지난 1950년대부터 자은도 일대에서 재배된 자은땅콩은 알이 일반 땅콩에 비해 작지만, 고소하고 달백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고령화로 점차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땅콩은 원료로 청국장과 땅콩기름 등을 개발, 특히 출원 중이다"면서 "자은땅콩을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자은면 일대에 토종 땅콩 시범단지를 만들어 브랜드도 '자은땅콩'으로 행정·제정적인 지원이 효과를

나주시가 최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시책 수립을 위해 직업훈련원,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한해 목표치의 88%를 달성했다.

또 MOU 체결업체 36곳 가운데 32개 업체가 투자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가운데 투자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7400억원 규모로 행정·제정적인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만들여진 일자리는 민간부문 503개, 공공부문 2491개 등 모두 2994개로, 올 한해 목표치인 3427개의 88%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 한해 MOU를 체결한 36개업체 가운데 공장을 착공해 투자 완료로 분류된 업체와 투자규모는 18개 업체에 2259억원, 투자 추진중인 업체는 14개 업체에 5134억 원으로 모두 32개 업체가 7393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투자유치 기업과 관내 기업에 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 중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통한 전문 인력 80명과 생산현장인력 205명에 대한 교육을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기업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을 큰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나주시에서는 기업이 꼭 성공한다"는 불패신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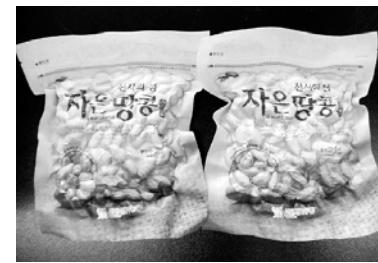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올 목표 88% 달성 중企대출 확대 기업지원도 활발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콩'으로 정하고 포장재 등을 개발했다.

자은땅콩은 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내년에는 40~50㏊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땅콩을 원료로 청국장과 땅콩기름 등을 개발, 특히 출원 중이다"면서 "자은땅콩을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님기자 wncho@

나주시 올 32개 업체 7400억 투자유치

나주시가 최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시책 수립을 위해 직업훈련원,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한해 목표치의 88%를 달성했다.

또 MOU 체결업체 36곳 가운데 32개 업체가 투자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가운데 투자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7400억원 규모로 행정·제정적인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만들여진 일자리는 민간부문 503개, 공공부문 2491개 등 모두 2994개로, 올 한해 목표치인 3427개의 88%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 한해 MOU를 체결한 36개업체 가운데

공장을 착공해 투자 완료로 분류된 업체와 투자규모는 18개 업체에 2259억원, 투자 추진중인 업체는 14개 업체에 5134억 원으로 모두 32개 업체가 7393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투자유치 기업과 관내 기업에 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 중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통한 전문 인력 80명과 생산현장인력 205명에 대한 교육을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기업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을 큰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나주시에서는 기업이 꼭 성공한다"는 불패신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남평 도시개발과 신도

산단 개발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외

환은행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3일 광주은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51명과 94명의 취업을 성공시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심혈을